

제 8강. 내일을 위한 교회

평신도가 움직이는 교회 (목양과 사역과 선교의 흐름을 유연하게 하라)

목회란 목양과 사역과 선교를 모두 포함한다. 목양의 장소는 양떼들의 공급의 원천으로서 푸른 초장이요 잔잔한 시냇가와 같은 곳이다. 젖을 내고 곡식을 내고 과일과 채소를 내는 곳이다. 수많은 양 떼들이 이곳에 와서 먹고 마시고 치유 받고 보호받는 곳이다. 그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신령한 은혜를 값없이 무한하게 받는 곳이다.

한편 사역은 목양에서 받은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무한히 쏟아 붓는 것이다. 그것은 봉사요 희생이요 헌신이다. 목양은 사역에서 열매를 맺고 꽃이 핀다. 사역 없이 목양만 있는 목회는 비만증에 걸려 병들고 쓰러지고 만다. 또한 목양이 없이 사역만 있는 목회는 쉽게 탈진하고 병들어 쓰러진다.

또한 사역의 종착지는 선교다. 사역에서 얻어진 모든 경험은 선교를 통해 완성된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며, 교회의 종착역이다. 선교를 생각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목양과 사역과 선교는 평신도를 통해 고리가 이어진다. 목양의 대상이 평신도이며 사역과 선교의 주체가 대부분 평신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일을 여는 교회는 평신도가 마음껏 자기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교회이다.

1.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언제든지 미래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사람이나 조직은 살아남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도태되고 만다.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은 변한다. 한편, 진리는 영원하지만, 진리를 실천해야 하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복음은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 없지만 그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 문화는 시대에 따라 변하며 역사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여 목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변할 수 없는 것을 타협하여 변형시키면 이단이 되기 쉽고, 반드시 변할 수도 있는 것을 진리처럼 고집하여 변화를 거절하면 형식주의에 빠지거나 생동감을 잃어버리게 된다.

권위(authority)는 중요하다. 그러나 권위주의(authoritarianism)는 잘못된 것이다. 일치(unity)는 중요하다. 그러나 획일성(uniformity)은 잘못된 것이다. 전통(tradition)이나 제도(system)는 소중하다. 그러나 전통주의나 제도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본질과 비 본질을 파악하며 내용과 형식의 한계를 알며 원리와 방법을 구별하면 목회의 많은 군더더기를 제거할 수 있다. 새들백 교회의 담임목사인 릭 위렌은 교회 성장의 방해 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내일을 위한 교회를 향하여 목회현장에서 변화를 추구할 때

생각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1) 먼저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의 틀이 변해야 한다 (paradigm shift).
- 2) 다음 세대의 변화의 방향을 분명히 인식하라.
- 3) 비전과 리더십을 확고하게 세워라.
- 4) 단계별 변화의 과정을 소홀히 하지 말라.
- 5) 장기전을 생각하라.

2. 창의성과 개성이 있는 목회를 하라.

내일을 위한 교회에는 창의성과 개성이 있는 목회가 이뤄진다. 내일을 위한 교회는 쉼 없이 변화를 추구한다. 그런데 변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어떤 일이든 생각을 많이 하면 무엇인가가 나오게 되어 있다. 따라서 창의성과 개성이 있는 목회를 위해서는 한 가지를 깊이 오래 생각하여야 한다. 똑같은 일이라도 생각을 많이 한 것은 무엇인가 달라지게 되어있다. 조금하면 목회는 망친다. 단순한 순발력으로 하는 목회는 오래 가지 못한다. 창조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오래 버티는 인내가 더 필요하다.

창조란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 작품이 결정되고 그 가치가 창출된다. 그것은 집을 짓는 그 일 자체보다도 그 집의 설계도가 더 중요한 것과 같다. 집을 짓는 일은 단순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목회도 마찬가지이다. 단순한 목회가 아니라 창조적인 목회를 생각해야 한다. 목회에 있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어야 한다.

- 1) 개별적인 것(individualistic)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corporate)이어야 한다.
- 2) 부분적인 것(partial)이 아니라 전체적(wholistic)이어야 한다.
- 3) 분화적인 것(divisive)이 아니라 통합적인 것(integrated)이어야 한다.

3. 전통(tradition)을 버리지 말고 개혁하라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다. 혁명을 영어로 revolu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우리 모두는 역사에 빚을 지고 있다. 아무도 과거 우리의 선진들이 쌓아놓은 가치관, 신학, 철학, 문화, 시스템의 틀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다.

청교도들의 약점은 자기들만이 순수 ("Puritan")하다는 생각, 그래서 과거 교회의 역사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매도해 버린 데 있다. 물론 항상 과거의 교회, 전통을 보면 부족한 점들이 많게 마련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씨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그래도 믿음의 본질을 보존해서 우리에게 넘겨준 사실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교회의 본질이 담긴 전통들은 보존하면서, 우리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복음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더할 것은 더하고 버

릴 것은 버려 가면 된다.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를 논하기 전에 무엇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먼저 확실히 해 놓아야 한다. 각 시대마다 이런 끊임없는 나름대로의 개혁(reformation)이 필요하다.

4. 팀 리더십을 구축하라.

아무리 훌륭한 비전이 있어도 그 비전을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리더는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인데, 그 그림을 현실화시키는 실제 작업은 그 리더가 구축한 팀 멤버들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19세기말 미국 경제의 틀을 다시 짠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한 마디로 이렇게 요약했다. “나는 내 주위에 나보다 탁월한 사람들을 둘 수 있었던 행운아였다.”

지도자는 다 방면에 뛰어난 팔방미인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도자가 너무 모든 분야를 지나치게 간섭하면 그것은 그 단체의 장기적 발전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는 그저 각 분야의 탁월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들에게 공통의 원대한 목표를 정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키워주며 나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되는 것이다. 특히,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고, 목회의 분야가 다양해질 21세기엔 팀 리더십, 팀 목회의 필요가 더욱더 절실할 것이다. 한 그루의 거목도 멋있지만, 그보다 더 웅장한 것은 울창한 숲이다.

5. 복음적이고 영적인 교회를 추구하라

시대가 아무리 변화한다고 해도, 절대 보존해야 하는 교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대로의 순수한 복음이다. 인간의 죄,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지속적이고 원색적으로 전해야 한다. 말씀과 기도가 불같이 살아있도록 영적인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라. 소위 신세대 사역, 구도자를 위한 사역, 문화 사역을 하는 많은 교회들이 복음적인 영성이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변화들을 시도한 까닭에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들처럼 무수히 무너져 갔음을 기억하라. 하드웨어가 약한 컴퓨터에 무리하게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다.

6.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의 이미지를 추구하라

과거 19세기 말 미국 교회도 그랬고, 근래 한국 교회도 그랬듯이, 교회는 너무 지나친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고집했다. 너무 모든 것을 영적 전쟁으로만 해석해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독단적인 흑백논리를 고수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세상의 죄성만 강조하지 말고,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동시에 일깨워줘야 한다. 잃어버린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교회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을 품고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 조금 힘들다고 세상에서 도피하게 하지 말고, 어려운 속에서도 세상에서의 자기 자리를 지키며 빛과 소금

의 역할을 다하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교회에서 선교가 있기 전에 구제가 있었는데, 오늘의 교회는 지역 사회를 끌어안는 데에 좀 더 시간과 재물과 사람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7. 가정과 더불어 행동하는 교회가 되라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최초로 만든 조직은 바로 결혼을 통해 만들어진 가정(family)이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의 예언을 보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 위에 부어 질 때, 자녀들(children)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vision)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dream)을 꾸는다고 되어 있다. 진정한 부흥을 체험하는 교회는 모든 세대가 다 함께 변하게 되어 있다. 오늘날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부부간의 불화, 세대 간의 불화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교회여야 한다. 복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날 때, 신세대는 구세대를 존경하고, 구세대는 신세대를 참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남편은 아내를 아껴주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교회는 어린 자녀들을 위한 주일학교 프로그램과 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30-40대 부모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이다.

8. 비전과 리더십이 분명한 교회를 만들어라

비전은 목표(goal)보다는 원대하고, 꿈(dream)보다는 구체적인 것이다. 따라서 비전이 확실하지 않을 때 그것은 변화를 위한 변화로 끝나고 만다.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림이다. 지도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서 교회가 나아갈 비전을 확실히 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모두에게 전달하고(communicate) 이해시켜야 한다.

리더십은 교회가 이 비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영향력(influence)이다. 비전을 현실화시키는 리더십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비전도 돈키호테의 꿈으로 끝나고 만다. 이 리더십은 이끄는 사람들을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하는 목자의 리더십이어야 하고, 권위와 능력을 공유하는 팀 리더십이어야 한다.

9. 평신도가 주역이 되는 교회를 세워라

가톨릭의 극단적인 성직주의 (clericalism)에서 종교개혁이 나왔지만, 우리는 그 동안 많은 경우 교회 일의 대부분을 목사가 하는 것을 당연시해 왔다. 그로 인해 교역자의 불필요한 탈진과 평신도들의 엄청난 가능성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70년대 미국 교회에 제자 훈련의 뉴 패러다임(paradigm)을 제시했던 빌 헐 (Bill Hull)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스포츠에서 코치(coach)의 역할로 정의했다. 그는 목자의 사명이 그라운드에서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감독과 같다고 했다. 그러므로 목사는 평신도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

견하고 그들을 훈련시켜 그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 전도와 선교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라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부끄럽게도 거의 수평이동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99%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인 새신자들로 성장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두 깊이 각성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영혼 구원에 집중하여 성장한 시카고의 윌로크릭교회의 정신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회는 전도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일은 교회일 중의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전도에 집중되어야 한다.

동시에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말씀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개인 전도의 차원을 넘어서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해야함을 보여 준다.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의 힘은 전도하며 선교 할 때 생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선교해야 한다. 가장 최고의 사람을 보내야 하며, 가장 귀중한 물질을 보내야 하며, 가장 뜨거운 기도로 선교를 뒷받침해야 한다.